

“옛 추억 새록새록...짜장면 더 맛나네요”

●동구 ‘추억의 음악다방&짜장데이’

자비신행회,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 초청
DJ 신청곡 열창...자원봉사자들 식사 조리해 대접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 사람들과 소통 하니 마음의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신재사 진원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 왔다. 짜장면으로 메뉴를 선택하게 됐다”며 “맛있게 한 그릇 비우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오시는 분들 모두가 오래 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웃었다.

임택 동구구청장은 “참석해주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정기자

“옛 음악을 들으며 추억도 되살리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24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동구 장동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는 ‘추억의 음악다방&짜장데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 이지애 동구의회 부의장, 신재사 진원스님, 박금숙 차이나쿡 대표와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좌)자비신행회 및 신재사(진원스님) 주관으로 열린 ‘추억의 음악다방&짜장데이’는 관내 1인가구·저소득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음악전문 DJ가 사연과 함께 추억의 음악을 들려주고 짜장면을 대접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1인가구, 저소득 층을

우선으로 자비신행회와 동구가 각각 40명, 60명을 추천해 선정하고 있다.

자비신행회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옛 추억들을 함께 즐기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나눔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고, 과거 다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등 어르신들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미리 도착한 어르신들에게는 다방커피, 생화차 등이 제공, DJ에게 전할 사연과 신청곡을 적을 수 있는 종이와 펜도 지급됐다.

신재사 진원스님과 박금숙 차이나쿡 대표 등 자원봉사자들이 100인분가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48 해질 19:13
🌙 달돋이 20:40 달지기 06:11

광주 맑음	11/25
목포 맑음	11/21
여수 맑음	11/21
나주 맑음	9/24
완도 맑음	11/25
구례 맑음	9/27
강진 맑음	10/25
해남 맑음	9/23
장성 맑음	9/24
보성 맑음	8/24
순천 맑음	10/25
영광 맑음	9/22
진도 맑음	10/25
흑산도 맑음	11/19
고흥 맑음	9/25

생활정보지수

🍷 **술이 6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70**

여행 떠나요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해 앞바다	0.5-0.5	0.5-0.5
동해 앞바다	0.5-0.5	0.5-0.5
남동해 앞바다	0.5-0.5	0.5-0.5
서남해 앞바다	0.5-0.5	0.5-0.5
남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동해 앞바다	0.5-0.5	0.5-0.5
남서해 앞바다	0.5-0.5	0.5-0.5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4월 26일(금)	☁ (14/24)	☀ (13/26)	☀ (16/27)	☀ (13/26)	☁ (15/20)
27일(토)	☀ (14/26)	☀ (15/28)	☀ (16/23)	☀ (14/27)	☁ (15/20)
28일(일)	☀ (15/27)	☀ (16/29)	☀ (15/23)	☀ (14/28)	☁ (16/23)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도교육청, 전남 첫 영구기록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추진

옛 목포청호중 부지...2028년 개원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옛 목포청호중학교 부지에 ‘역사유물 기록원’ (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이 제379회 전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통과됐다.

역사유물 기록원(이하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남교육 문화유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원이 예정대로 2028년 개원하면 전남지역 최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된다.

기록원은 박물관 기능과 연계해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소장 기록뿐만 아니라 전남교육 정체성과 고유성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나비축제 기다리는 황금박쥐상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08년 30억원을 들여 순금 162kg을 넣어 제작한 황금박쥐상은 지난 3월 어두컴컴한 동굴전시장을 떠나 공원 내 문화유물전시관으로 옮겨왔다. 현재 150억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함평나비축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1일간 열린다.

통해 전남교육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록원은 2개 동, 지상 3층, 연면적 5천313.9㎡ 규모로 ‘증축 및 부분 리모델링’ 방식으로 설립되며, 총 사업비는 용

지비를 포함해 20억원이다./김다이어기자

광산구,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새 단장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로 이전

광주 광산구는 24일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9일부터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송정동 76-1에 있는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는 생활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건립이 추진돼 지난 3월 준공됐다.

연면적 약 5천228㎡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기존 행정사무 위주의 대민 서비스 공간에 문화·체육 공간을 더해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그간 민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던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송정다누리로 이전함으로써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북돋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다누리’에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작은도서관과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며 개청식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료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톤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TYPE **82A | 84B | 84C**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대단지 | (구)33평형, 43평형 | 계약금 5%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선착순 동·호수 지정

대표 전화 **1533-8316**